

KIA 씹쓸한 빈 손… 남의 잔치된 골든글러브 시상식

양현종 등 후보 9명 수상 실패…투수 린드블럼·포수 양의지

키움 김하성, 유격수 부문 93.7% ‘역대 최다 득표’ 영예

역시나 ‘호랑이 군단’에는 남의 잔치였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10명의 선수가 골든글러브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KIA는 전신 해태시절을 포함해 모두 67명의 수

상자를 배출하면서 삼성과 함께 통산 최다수상 공동 1위팀에 올라있지만, 올 시즌에는 골든글러브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양현종·윌랜드·터너(이상 투수), 최형우(지명타자), 안치홍(2루수), 박찬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이창진·타커(이상 외야수) 등 9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예상대로 수상에는 실패했다.

투수 부문에서는 ‘3관왕’ 린드블럼(두산)이 전체 유효표 중 268표를 획득, 77.2%의 득표율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2년 연속 수상이다. 양의지(NC)도 포수 부문에서 316표(득표율 91.1%)를 받아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키움 박병호(240표·득표율 69.2%)가 1루수 수상자가 됐고, NC 박민우(305표·87.9%)와 SK 최정(271표·득표율 78.1%)는 각각 2루수와 3루수 수상자로 호명됐다.

키움 유격수 김하성은 325표를 쓸어 담으면서 가장 높은 93.7%의 득표율로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야의 세 자리는 키움 이정후(315표·득표율 90.8%), 키움 샌즈(211표·득표율 60.8%), KT 로하스(187표·득표율 53.9%)의 차이가 됐다.

두산 페르난데스(307표·득표율 88.5%)는 최고의 지명타자로 선정됐다.

한편 LG 채은성이 KBO 상벌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고,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가 뽑은 골든포토상은 두산 배영수에게 돌아갔다. 배영수가 두산의 2019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두 팔

을 든 모습이 ‘최고의 장면’이 됐다.

SK투수 박종훈은 ‘2019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종훈은 ‘행복드림 캠페인’에 참여해 1승 당 100만원을 적립, 지난해와 올해 2200만원을 기부했다. ‘희망더하기 캠페인’을 통해서도 1이닝 당 10만원씩 적립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위해 700만원을 기부했다.

‘불멸의 4번 타자’ 백인천도 공로패 수상자가 됐다. KBO는 리그 선진화 및 은퇴 야구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로패 수여를 결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

父子 축구 맞대결… 폭소만발 관중석



광주FC의 주장 김태운(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8일 유스퀘어에서 진행된 ‘리틀킥 오프’ 행사에서 아들 건우(5번)군 등 참가 어린이들과 5대5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광주서 어린이 축구교실…광주 FC 김태운·김재성 스태프로 참가

김태운 아들 건우군 맹활약…아빠가 지휘하는 홍팀에 3-9 대패 안겨

김건우(청팀 5번)의 골세리머니에 아빠(홍팀 김태운 감독)가 당황했고,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지난 7·8일 광주 유스퀘어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로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실 ‘리틀킥 오프’가 열렸다.

축구를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축구교실, 5대5 축구시합, 프리스타일 축구공연, 축구 관련 OX퀴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토존, 테이블 축구, 킥 불링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부자(父子)의 맞대결’이었다.

7일 현영민에 이어 8일 광주FC 주장 김태운과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김재성이 ‘리틀킥 오프’ 축구교실 감독으로 참가했다.

김태운과 김재성은 각각 홍팀과 청팀 감독을 맡아 5대5축구를 지휘했다.

참가 어린이들의 치열한 대결 속에 특히 눈길을 끈 선수가 있었다. 날렵한 움직임으로 몇 차례 홍팀 골문을 뚫은 청팀의 5번 선수. 바로 홍팀 감독 김태운의 아들 건우(6)군이었다.

건우군의 골 세리머니가 나올 때마다 김태운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 바빴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아빠가 지휘한 홍팀에 3-9 대패를 안겨준 건우군은 “재미있었다. 아빠와 함께해서 재미있었다.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아빠다. 드리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아빠한테 리프팅을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구인이자 아버지인 김태운에게도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태운은 “나도 애 아빠라 이런 행사를 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며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더라. 상대 팀이지만 (아들이) 잘하는 것 보니까 뿌듯하고 좋았다”고 웃었다.

이어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린 친구들이 축구를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생기고 팬도 많이 확보되면 좋겠다”며 “어린 친구들이니까 승부, 결과보다는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 즐기면서 하면 습득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즐기면서 좋은 선수로 성장하면 좋겠다. 꼭 선수가 아니라도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크면 좋겠다”고 축구 꿈나무들에게 당부했다.

김재성 위원도 “일단 축구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승패를 떠나서 아이들이 축구를 접할 수 있고 부상 없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호아킨, 라리가 최고령 해트트릭

‘38세 140일’ 55년만의 기록 경신…디 스테파노 보다 250일 늘려

스페인 축구 대표팀 출신의 공격수 호아킨 산체스 로드리게스(38·레알 베티스)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55년 만에 갈아치웠다.

호아킨은 8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베니토 비야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 2019-2020 프리메라리가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레알 베티스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레알 베티스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호아킨은 전반 2분 만에 에메르송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골지역 왼쪽에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선제골을 쏘았다.

호아킨은 전반 11분 알렉스 모레노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트로 추가골을 터트렸다.

마침내 전반 20분 로렌 모론이 후반에서 쏘려준 스트루패스를 이어받은 호아킨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논스톱 오른발 슈트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킥오프 20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한 호아킨의 나이는 38세 140일이었다.

이는 1964년 3월 15일 레알 마드리드 ‘전설의 골잡이’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아르헨티나)가 37세 255일에 작성한 프리메라리가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250일이나 늘린 새로운 기록이다.

1999-2000시즌 레알 베티스 B팀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호아킨은 발렌시아, 말라가, 플로렌티나 등을 거쳐 2015년 ‘진정팀’ 레알 베티스로 돌아와서 꾸준히 측면 날개로 활약하는 베테랑 공격수다.

호아킨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낯익은 이름이다.

스페인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선 호아킨은 한국과 8강전 승부차기 4번 키커로 나섰다. ‘거미손’ 이운재의 선방에 막히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호아킨의 솜을 이운재가 막은 덕분에 한국은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레알 베티스는 호아킨의 해트트릭으로 3-0으로 앞서다가 2골을 내주면서 3-2로 승리하고 3연승을 내달리며 하위권에서 11위까지 올라섰다. /연합뉴스

손흥민 BBC ‘베스트 11’

“올 시즌 최고 골 후보감”



“이런 골은 AC밀란 시절의 조지 웨아 이후 처음이다.”

“70m 질주 원더골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손흥민(27·토트넘)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가스 크록의 이주의 베스트 11’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미드필더 부문에 올렸다.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선정한 16라운드 베스트 11에서 손흥민은 조지 발록(세필드 유나이티드), 조던 헨더슨(리버풀), 제임스 매디슨(레스터시티)과 함께 미드필더진의 왼쪽 윙 자리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전반 열린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32분 폭풍 질주로 3-0으로 달아나는 골을 넣었다.

BBC의 크록 해설위원도 조지 웨아(현 라이베리아 대통령)라는 또 한명의 걸출한 골잡이를 ‘소환’했다. 크록 해설위원은 “그라운드 끝에서부터 끝까지 달리며 수비수 한 무더기를 떨쳐낸 뒤 골을 넣는, 이런 장면을 보여준 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면서 “오랜만에 손흥민이 그것을 해냈다”고 말했다.

1996년 AC밀란(이탈리아) 소속이던 웨아 대통령은 베로나를 상대로 82m를 질주한 뒤 득점한 바 있다. 크록 해설위원은 “손흥민의 골은 분명 ‘올 시즌 최고의 골 장면’ 후보감”이라면서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업적’에 비견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